

서술형 평가에서 글씨를 엉망으로 쓰면 감점받나요?

아이가 악필이라 중학교에 가면 수행평가나
서술형 문제에서 감점을 받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혹시 글씨체에 따른 성적 처리 규정이 따로 있나요?

글씨체 자체는 평가 항목 아니지만 알아볼 수 없는 글자나 기호는 감점 처리

연필보다는 키보드가 익숙한 요즘 세대는 손글씨를 쓸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필기구를 쥐는 손힘이 약하다 보니 글씨를 바르게 쓰는 학생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내신 평가에 논·서술형 비중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만큼 바른 글씨의 중요성은 오히려 강조되는 추세입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역량·혁신교육과 관계자는 “글씨체 자체가 평가 항목이 아닌 만큼 단순히 글씨를 못 썼다는 이유로 감점을 받지 않는다. 다만 채점을 할 때 학생이 쓴 글자나 숫자, 기호 등을 교사가 도저히 알아보기 힘들 경우 점수가 깎이거나 오답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인천 남인천여중 신미경 교사는 “악필인 학생도 서술형 답안을 작성할 때는 글자를 또박또박 쓰려고 노력한다. 한데 시간이 부족해지면 마음이 급해 글씨를 날려 쓰는 경향이 있다. 영어는 철자나 문장부호도 엄격하게 채점하는 만큼 알파벳을 알아볼 수 있게 써야 한다. 수학은 등호(=)와 음수(-) 등 기호를 겹쳐 쓰지 않도록 유의하고, 국어는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신경 써야 한다. 무엇보다 답지를 깔끔하게 작성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나가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신 교사는 또 “학교마다 평가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채점 결과에 의문이 든다면 담당 교사에게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설명합니다. ⑩